

# 학생인권조례안, 무엇이 문제인가?

길원평

## 차별금지 대상, 성적지향(동성애)

작년 12월 19일에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서울시교육청에 보냈으며, 박노현 교육감이 확정 발표를 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통합당이 찬성을 당론으로 정하여 통과되었다. 조례안의 문제점은 네 가지인데, 첫째 성적지향(동성애)을 차별금지대상으로 지정했다. 많은 분이 차별을 손가락질하고 괴롭히는 것으로 인식해서, 동성애는 나쁘지만 동성애자들이 차별받지는 않아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차별금지의 법적 의미는 모든 영역에서 분리, 구별, 제한 등을 금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차별금지대상, 즉 성별, 장애 등처럼, 동성애를 비윤리적, 비정상적, 죄라고 인식하면 안 되고 정상으로 인식해야 한다.

조례안이 확정됨으로써,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하고, 동성애로 물의를 일으켜도 징계를 할 수 없고, 동성애를 끊도록 상담하고 설득

아빠의 룸메이트(Daddy's Roommate)



할 수 없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외국은 학교 성교육시간에 동성애 방법을 가르치고 동영상까지 보여준다. 캘리포니아 주는 학교에서 동성애를 좌측에서 예를 든 것과 같은 만화로 가르친다. 조례안은 개인의 윤리관을 무시하고, 학교는 고유한 교육신념, 종교관에 따라 가르치길 원하지만 허용하지 않는다. 문화는 동성애를 미화하고, 학교에서 동성애를 인정하면 청소년 사이에 동성애확산을 막을 길이 없다. 2009년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 AIDS 환자의 48%가 동



성애로 감염되었는데, 청소년 사이에 AIDS가 확산될 수 있다.

### 또 다른 차별금지 대상, 임신과 출산 그리고 종교교육

두 번째 문제점으로 임신 또는 출산을 차별금지대상으로 지정하였는데, 성도덕 붕괴와 성적문란을 조장할 수 있다. 세 번째 문제점으로 종교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교장, 교사는 학생에게 종교행사 참여 또는 종교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특정종교를 선전하여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거나, 종교 시간이 아니면 특정종교를 자주 언급할 수 없도록 구체적으로 금지한다. 조례안이 발효되면 사립학교의 종교교육할 권리가 침해받고 미션스쿨의 종교 활동은 위축될 것이다. 마지막 문제점은 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집회를 열고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학생이 공부에 전념하지 못하게 만들기에, 정치는 어른이 책임지고 학생을 끌어들이지 말아야 한다.

### 현 조례안에 대한 대안제시

현 조례안의 대안으로 성적지향과 임신 또는 출산

은 다른 차별금지대상과는 다른 조항에 넣고, 그 조항에 윤리적 고려도 포함한다. 예로서, 학생은 성적지향,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권리를 가지되, 학교와 교사의 윤리적 표현과 결정은 허용한다. 즉, 순결교육, 동성애에 대한 윤리적 표현, 심한 동성애자에 대한 징계 등을 허용한다는 뜻이다. 종교교육에 대한 제한은 공립학교에만 적용하고,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은 보장한다. 학생들의 의사표현 자유는 교내문제에 국한하고 정치 참여는 금한다.

얼마 전부터 동성애가 사회이슈가 되더니, 제1야당인 민주당이 학교에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릴 정도로 심각해졌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기독교계가 단합하여서 반대 목소리를 내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대다수 국민이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고, 기독교윤리관을 가진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각 계각층에 있기에, 전문가 그룹에서 체계적인 뒷받침하고, 기독교계의 전체 힘을 잘 조직화하면, 동성애 확산을 막을 수 있다. 더는 방관하지 말고 오늘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주어진 지위와 능력을 사용하자. **W**



길원평 부산대 물리학과 교수이다.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미국물리학회 회원으로서 한국창조과학회 이사를 맡고 있다. 과학의 궁극적 목적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전파'에 있다는 신념에 근거해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cbioethics.org)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다.